

글쓰기 요령

I. 작문의 기초

1. 작문의 기초

가. 언어의 본질

- 1) 인간은 언어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수 없다: 언어적 인간 (homo loquens).
- 2) 언어는 음성언어 와 문자 언어의 결합이다.

나. 언어의 기능

- 1) 정보전달의 기능 (의사 소통의 기능)
- 2)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 3)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
- 4) 미학적 기능
- 5) 문화 창조적 기능

다. 언어의 특성

- 1) 창조성: 새로운 문화 창조
- 2) 이원성: 형식 (음성) 과 내용 (음성)
- 3) 임의성 (자의성) 과 관습성: 음성과 의미의 관계
- 4) 분석성: 체계적, 구조적
- 5) 문화적 전달을 가능케 한다.

라. 국어의 이해

- 1) 국어의 분류: 고어와 현대어, 고유어와 외래어, 표준어와 방언
- 2) 외래어: 다른 나라의 문화와 함께 외국어가 들어오면서 순수한 우리 국어 속에 포함된 말
- 3) 표준어: 국가에서 규범으로 정해 놓은 국어 “교양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방언: 표준어가 아닌 국어
- 5) 방언은 지역 방언 (지방어) 과 사회방언 (은어, 비어, 속어 등) 이 있다.

2. 작문의 중요성

가. 작문의 필요성

- 1) 사회적 인간관 (homo politicus): 의사소통의 필요성
- 2) 작문: 문자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글을 쓰는 것

나. 작문의 목적

- 1) 필자 자신의 표현욕구 해소
- 2) 사고 표현의 능력 배양: 의미와 내용의 정확한 전달
- 3) 창조력 배양: 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계발 시키는 기회

다. 좋은 글

- 1) 쓰기 전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먼저 정리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쓴 글
- 2) 독창적이어야 한다.

- 3) 많은 독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글
- 4) 독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 5) 논리적이고 문법적이며 맞춤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 6) 여러가지 표현 기법을 통해 의미의 정확한 전달과 감동과 이해가 바른 글 이어야 한다.
- 7) 글감 (글을 쓰는 재료) 과 주제 (필자의 의도) 가 명확해야 한다.

3. 작문의 과정

가. 작문의 절차

- 1) 목적에 맞는 내용: 쓰기 전에 목적을 세울 것
- 2) 주제의 결정: 글의 주제는 전체의 내용을 집약하는 것
- 3) 제재 (글감) 의 선정
- 4) 구성하기
- 5) 집필하기

나. 글감의 의미

- 1) 풍부하고 다양할 것
- 2) 근거가 확실할 것
- 3) 주제를 뒷받침 할 것
- 4)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II. 표준어와 맞춤법

1. 맞춤법

가. 맞춤법: 괄호 안에 맞춤법에 맞는 말을 찾으라.

- 1) 우리 집 (위층, 윗층, 옷층) 에는 할머니가 혼자 삽니다.
- 2) 봄날 들뜬에 나가면 (아지랑이, 아지랭이) 를 볼 수 있다.
- 3) 순이는 옷을 예쁘게 입는 (멋장이, 멋쟁이) 이다.
- 4) 어제 우리 집 복실이가 (숫 강아지, 수강아지, 수캇아지)를 낳았다.
- 5) 아직은 (풋나기, 풋내기) 지만 이제 곧 잘하게 될 거야.

나. 바른 표기: 밑줄 그은 말 중에서 바르게 표기된 말을 찾아 괄호 안에 0 표를 하라.

- 1)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
- 2) 가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라 ()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
- 3)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갓읍니다 ()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갓습니다 ()
- 4) 학생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
학생으로써 그럴 수는 없다 ()

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곳을 찾아 정확하게 고치라

- 1) 나는 책을 샀다. 그는 연설문 책이다. ()
- 2) 어른도 못하는 일을 하물며 어린이가 한다. ()
- 3) 시험에 반듯이 합격해야 한다. ()
- 4) 우리 집 앞에 적은 나무가 한 그루 있다. ()
- 5) 그는 언제까지나 밝은 표정이기 때문에 만나면 기분이 좋다. ()

라. 띄어쓰기: 다음 문장을 바르게 띄거나 붙여서 써 보라

- 1) 나는야구를 좋아한다.
- 2) 나는열세살이고내동생은열살입니다.
- 3) 할머니가죽을잡수시고아버지는밥을잡수신다.
- 4) 놀 땐 놀 고 공 부 할 땐 공 부 하 자.

마. 다음 문장에 알맞는 문장 부호를 넣어 바르게 써 보라.

- 1)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미풍이 불어 온다.
- 2) 네가 읽고 있는, 그 책 재미있니?
- 3) 공자는 “사람이 아침하면, 어질지 못하다.” 고 말했다.
- 4) 감, 배, 사과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오너라.

바. 다음의 단어를 가지고 바른 문장을 만들어 보라.

- 1) 아니다, 좋은 글, 꾸민, 과장된 글은
- 2) 다시는, 전쟁, 6.25, 같은, 없어야 한다.
- 3) 장군, 민족의 영웅, 이순신, 선생, 우리, 안창호
- 4) 독서, 교양, 생각, 깊게 한다, 넓혀 주고

사. 짧은 글 짓기: 다음 단어들을 활용하여 뜻이 구별될 수 있도록 짧은 글을 지으라.

- 1) 가르치다
가르키다
- 2) 잃다
잊다
- 3) 만드시
반듯이
- 4) 붙이다
부치다
- 5) 빗다

- 빛다
 6) 앓다
 안 하다
 7) 매다
 메다
 8) 맞다
 말다
 9) 벌이다
 벌리다
 10) 싸여
 쌓여
 11) 작은
 적은
 12) 젖다
 족다
 13)-로써
 - 로서
 14) 너머
 넘어
 15)다리다
 달이다
 16) 여의다
 여위다
 17) 마치다
 맞히다
 18) 내 (것)
 네 (것)

III. 어휘력 기르기

1. 문맥에 맞는 단어 쓰기

가. 다음 문장을 읽고 밑줄의 낱말을 문맥에 맞게 고쳐 쓰라.

- 1) 연극이 끝나자 관객들이 밀물처럼 빠져 나갔다.
- 2)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다.
- 3) 담장을 희망의 빛깔인 회색으로 칠했다.
- 4)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보자마자 헐레벌떡 먹었다.

5) 지난 방학에 다녀온 수련회는 나에게 귀중한 견문이 되었다.

2. 올바른 단어 쓰임 알기

가. 단어의 쓰임이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라.

- 1) 일요일마다 기독교에 다닌다.
- 2)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많이 틀리고 공부가 떨어졌다.
- 3) 맨발 벗고 열심히 뛰었다.
- 4) 애들아, 우리 함께 축구 차려 가자.

3. 어려운 한자어

가. 다음 빈 곳에 가장 적합한 말을 찾아 써 넣으라.

정신, 감상, 생각, 감정, 개념, 감동

- 1) 우리는 기쁨, 슬픔, 즐거움 등의 ()을/를 잘 조절해야 한다.
- 2)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좋은 () 이/가 떠오르지 않는다.
- 3) 좋은 문학 작품은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을/를 준다.
- 4) () 문명과 물질 문명의 발달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나. 다음 밑줄 그은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라.

- 1)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 2) 겨울에는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 3)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라.
- 4) 장마철에는 하천이 범람하는 일이 많다.

4. 의미 중복 사용

가. 다음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고쳐 쓰라.

- 1)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일이 꽤 많다.
- 2) 진실은 언젠가는 자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3) 삶을 오래 영위하려면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4) 네 얘기를 듣고 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5) 내일 아침 역전 앞에서 만나자.

6) 같은 잘못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7) 이번 여름 하계 수련회 일정이 잡혔다.

8) 이 제품은 쓰이는 용도가 무척 다양합니다.

5. 틀리기 쉬운 말 바르게 고치기

가. 다음 문장 중에서 쓰임이 잘못된 말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

1) 농촌에는 모내기가 한참이다.

2) 흙덩이를 작게 부셔서 화분에 넣어라.

3) 김장 배추를 소금에 저렸다.

4) 지긋이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IV. 문장력 기르기

1.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가. 다음 시에서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한 것은 마음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생각하여 쓰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나. 다음은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의 일부분이다. 빈 칸에 알맞은 비유어를 써 넣으라.

학생을 태우고 나서 김 첩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뿐하였다.
달음질을 한다느니 보다 거의 바퀴도 어찌나 속히 도는지, 굴러간다느니 보다 마치
()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 했다.

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그은 부분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는지 써 보라.

- 1) 내 누님과 같이 생긴 꽃이여! ()
- 2) 일하시는 아버지의 얼굴 위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
- 3) 송편 같은 반달이 하늘에 떠 있다. ()
- 4) 눈물이 구슬처럼 방울방울 떨어졌다. ()

라.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비유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라.

- 1) 주변이 () 듯이 고요했다.
- 2) 영숙이의 얼굴은 ()처럼 복스럽다.
- 3) 밤 하늘이 ()처럼 캄캄하다.
- 4) 초승달의 날씬한 모습이 마치 () 같다.

2. 이어진 문장 만들기

가. 다음 빈 칸에 알맞은 접속어를 골라 쓰라.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면

- 1)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다. () 얼른
집으로 돌아왔다.
- 2)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대가족 제도의 전통을 이어 왔다. ()
현대에는 핵 가족 제도가 점차 자리잡게 되었다.

나. 다음 두 문장을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라.

- 1)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 2) 눈이 왔다. 길이 미끄럽다.
- 3) 현주가 뛰어갔다. 경희는 걸어갔다.
- 4) 부모는 자식을 먹여 살린다. 부모는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3. 올바른 접속어 사용

가. 다음 밑줄 친 접속어를 바르게 고치라.

- 1) 사람의 목숨은 참으로 귀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 ()
- 2) 옛날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일이 있어도 빨리 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사람들은 서로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연구하였다. ()

- 3) 우리가 사랑하는 전통과 문화는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가꾸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 준 문화 유산을 바르게 계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수식어를 사용하여 문장 확장하기

가. 다음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문장을 확장시켜 보라.

우리는 그 일을 해냈다.

->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해냈다.

1) 철수는 책을 읽었다. → 철수는 () 책을 읽었다.

2) 나는 능력이 없다. → 나는 () 능력이 없다.

3) 비가 내린다. → 비가 () 내린다.

4) 나는 소식을 들었다. → 나는 () 소식을 들었다.

5) 우리는 산에 올라갔다. → 우리는 () 산에 () 올라갔다.

나. 다음 문장의 빈칸에 보기와 같이 수식어를 넣어 문장을 확장시켜 보라.

철수가 책을 샀다. → 철수가 새 책을 많이 샀다.

1) 소녀가 () 꽃을 () 꺾었다.

2) () 밭에는 보리가 () 익어가고 있다.

3) () 할머니가 () 길을 걷고 있다.

4) () 꽃이 () 피어 있다.

5) 서리가 내리면 나뭇잎이 () 물들겠지.

6) 아침에 늦잠을 자서 () 학교로 갔다.

7) 그들은 () 자유를 누렸다.

5. 간결한 문장으로 쓰기

가.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간결하게 고쳐 쓰라.

1) 신라인의 손으로 삼국 통일의 위업을 이루고야 말았던 것이다.

2) 우리에게 오늘의 있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는 산처럼 무겁고 바위처럼 묵묵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4)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른다.

나. 다음 두 문장에서 중복된 부분을 지시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줄여 쓰라.

1) 그는 생물학 분야에 취미가 있었다.

그는 생물학 분야의 학자는 아니었다.

- 2) 그는 추풍령 아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추풍령 아내 어느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 3) 요즘 청소년들은 향락적이고 소비적이고 주체성이 없다고들 한다.
과연 향락적이고 소비적이고 주체성이 없는 게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
- 4)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지었다.
그 책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 5) 그는 아리랑을 아주 멋지게 불렀다.
우리는 아리랑을 즐겨 부른다.
- 6) 춘향전은 남녀의 사랑을 그린 소설이다.
그것은 국문학 사상 대단히 유명한 소설이다.

6. 사실과 의견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기

가. 다음 빈칸에 알맞은 사실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라.

- 1) 어떤 평균 실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평균보다 10 퍼센트 무거운 사람은 평균 체중인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중보다 10 퍼센트 무거울 때, 남자에게는 11 퍼센트, 여자에게는 7 퍼센트의 수명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실험 연구의 결과는 ()을 일깨워 준다.
- 2) 곰이나 뱀은 가을 동안 영양을 충분히 섭취한 후, 땅 속에서 잠을 자면서 겨울을 보낸다. 다람쥐는 가을부터 겨우내 먹을 것을 준비해 둔다. 제비는 따뜻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낸다. 곤충들은 나뭇가지 위에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알을 낳는다. 이처럼 동물들은 () 방법이 다양하다.

나. 다음 빈 칸에 알맞은 의견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라.

- 1) 벌은 꽃을 향해서 곧바로 날아간다. 가능한 한 최단 거리를 택해서 일직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그러나 나비는 그렇지 않다. 나비는 곧장 꽃을 향해서 나는 법이 없다. 위로 아래로, 혹은 좌우로 변화 무쌍한 곡선을 그린다. 벌이 꽃을 향해서 행진을 한다고 한다면, 나비는 () 하는 편이 어울릴 것이다.
- 2)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서나 여성의 역할은 비슷하다. 여성은 아기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킨다. 만약 이 때 여성이 잘못된 생각이나 철학을 가진다면, 아기는 어떻게 자라날까? 말할 필요도 없이, 뼈뼉어지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
).